

[특별기획/농어촌 지역개발 어디까지 왔나] 미항으로 재탄생 '경주 수렴항'...마을공동체도 활기

[이상길]

현장 사례 3선

②어촌뉴딜로 미항 거듭난 '경주 수렴항'

③국내 1호 낙농체험목장 '예산 태신목장'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수렴항. 경주시 동해안의 가장 끝자락이자, 울산광역시와 붙어있는 이곳 수렴마을이 요즘 몰라보게 달라졌다.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면서, 아름답고 안전한 미항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이곳을 찾는 이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면, 마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 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사업 전 수렴항에 도로와 방호벽이 혼재돼 있는 모습(왼쪽)과 사업 후 달라진 수렴항. 앞바다에 파제제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 안전한 미항으로 재탄생했다.

동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수렴마을은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직접 횡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한적한 어촌인데, 매년 태풍 피해가 큰 우환이었다. 마을 중심부 도로와 연접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이중방호벽(방파벽)은 시설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파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태풍이 불어오면 월파, 침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어왔다. 또 도로와 방파벽 사이가 좁아 안전사고 위험도 높았다. 실제 2018년 '콩레이', 2019년 '타바'가 몰려왔을 때 해안도로가 유실되고, 민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수렴마을 어촌뉴딜은 사업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6월30일까지다. 사업비는 국비 78억1500만원, 지방비 33억4900만원을 합쳐 총 111억64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월파방지시설을 비롯한 재해예방 시설로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했다. 월파 방지는 주민들이 설치한 방호벽을 철거하고, 대신 해상에 테트라포드(원기둥 모양으로 4개의 발이 달린 구조물)를 쌓아 파도를 막는 시설인 '파제제'를 새로 설치하는게 핵심이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는 추진회의 때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경주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진회의 때 이 시설을 태풍이 도래하기 전인 7월 초순에 완료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 7월에 본공사와 부속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파제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됐다. 2020년 9월, 우려하던 태풍 '마이삭'이 도래한다고 하자, 마을에선 보강시설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 협의 결과 상가 보호를 위해 월파벽 앞 광장 130m 구간에 추가로 톤백을 2단으로 설치하고 태풍에 대비했다. 1차 '마이삭'에 이어 2차 '하이선'이 내습해 8.5m의 파고가 몰아닥쳤지만, 다행히 바람에 의한 비산을 제외하고는 파도로 인한 피해는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황상진 과장은 "초기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다"면서 "파제제가 효과를 보자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사업 성공의 확신을 갖고 한 발 나아가게 됐다"고 한다.

월파 방지시설의 효과는 이듬해에도 확인됐다. 2021년 8월 태풍 '오마이쓰'가 왔을 때 인근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수렴마을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낙후된 도로를 개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수렴마을은 국도가 관통되는 마을길에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뉴딜사업으로 도로 선형을 개량하면서 안전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면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 지역자원 활용, 활력을 되찾은 마을



수렴천 보도교. 강 위로 해파랑 길을 잇는다.



황새가 자주 찾아 황새바위라고 불리며, 실루엣이 군함 같아 군바위로 불린다.

수렴마을은 동해바다와 황새바위, 당나무(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깃들어 마을 제사를 지내는 나무) 등 아름다운 경관과 향토자원을 품고 있는 곳이지만, 이런 경관에 대한 안내와 휴식시설이 부족했다. 수렴마을 어촌뉴딜 사업은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안산책로 '해파랑길' 연계 사업으로 '관성해변 솔밭 숲길'을 정비하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수렴천 위에 매퓌 있는 모습의 보행자통행교를 설치, 산책로를 연결했다. 마을의 명소인 황새바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하고, 해양레포츠 체험장도 만들었다. 다목적광장과 월파 옹벽 보강부분에는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에도 다채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주민주도 사업의 핵심, 양보와 협치



마을에서 진행되는 어촌문화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주민 주도형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이 계획 및 개발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은 설명회 수준의 의견 제시에 그치던 방식에서 어촌 뉴딜은 계획 및 개발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하고 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을 표방한다. 지역협의체는 지자체 담당과장과 현직 어촌계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 중 50% 이상이 지역주민이다.

수렴마을의 경우 지역협의체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수렴항 어촌뉴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일성 어촌계장)'가 주도했다. 추진위원들은 지역협의체에도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물론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되는 지역 개발사업이란 사업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시행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수렴항 어촌뉴딜이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된 데는 김일성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마을 이장 등 주민들이 합심한 결과다. 김일성 수렴 어촌계장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사업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다목적광장 조성구간에 각 횃집에서 운영 중이던 노후된 포차가 경관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걸 철거하려는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이 부진했죠. 그 때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설득과 협의를 거친 후 김일성 위원장이 소유한 포차를 제일 먼저 술선수범, 자발적 철거를 단행하자 이어 다른 주민들도 포차를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수렴항 뉴딜에는 사업의 추진조직인 추진위원회에 기존의 주민조직인 '수렴리 개발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주민의 참여도를 더욱 높였다. 추진위원회와 개발위원회는 필요시 연석회의를 여는 등 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해 조율했다.

이런 체계 하에서 다양한 교육과 소통이 이뤄졌다. 사업과정에서는 주민의 갈등요인을 파악해 해소하고, 함께 마을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교육, 전문가교육, 소득사업연계교육, 선진지 답사 교육 등 60여 차례의 교육이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의 생각은



노후된 마을회관을 마을카페와 복합공간으로 새로 꾸몄다.

수렴항 어촌뉴딜사업은 주민들에게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으로 주거환경, 어항기반, 생활 안전, 재해예방, 관광기반시설이 개선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관광객도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대일 수렴리 이장은 "사업을 해 놓고 보니 쓰레기도 감소하고, 보도를 분리하면서 교통사고도 없어졌다"면서 "마을이 깨끗하고 안전해지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평가한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사업 이후 운영은 마을 주민들에게 남겨진 과제다. 뉴딜사업 이후 시설 운영은 마을에서 만든 영어조합법인이 맡게 된다. 당장 주민들이 운영해야 할 공간은 마을 카페.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회관을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의실, 3층과 옥상은 주민 소득사업인 마을카페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카페 운영은 마을 부녀회가 나섰는데, 회원 20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마쳤고, 이 중 5명 정도가 고급과정까지 수료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추후 수렴항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로 △마을 주차시설 확충 △마을 입구 표지판 설치 등을 꼽고 있다. 뉴딜 사업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입지적 특성 상 쓸 만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이 수렴항을 쉽게 찾아오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포털에 위치를 등록할 필요도 있다.

인구 494명, 255가구, 어선 30척의 작은 어촌마을 수렴항. 어촌뉴딜사업으로 안전한 미항으로 거듭난 수렴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